

13일 대장정 友情 · 和습의 시간

2006 평화대장정 발대식 개최

경기도는 8월9일 오전 도청회의실에서 원유철 정무부지사 등 대학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대장정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평화대장정 발대식 선서에 이어 경기도기, 대장정기 등 24개 깃발 입장, 2005 및 2006 평화대장정 소개후 순화규 전 도지사, 2005평화대장정 대표 등 참가학생 부모님의 영상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한 참가단 대표의 선서문 낭독, 전남대 박수현 장학 관소리에 이어 2006 평화대장정 출정을 선포하고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해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을 거쳐 파주에 걸쳐 13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8월 21일 파주 평화누리에

도착한다.
 이번 대장정 주요내용으로는 DMZ 접경지역 도보행진으로 분단역사와 현실을 느끼고 배우는 평화·역사 체험행사에 이어 DMZ내 환경생태 체험·확인행사 등을 병행 실시한다.
 원유철 정무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06 평화대장정을 통해 깨달음의 시간이 되고, 우정을 쌓는 화합의 시간이 되어 자신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는 8월9일 오전 도청회의실에서 원유철 정무부지사 등 대학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대장정 발대식을 가졌다.

멸종 위기 식물 '섬시호' 복원

국립수목원, 울릉도 도동 일원 군락지 관리

멸종 위기 식물인 '섬시호'가 40년 만에 자생지인 울릉도에 복원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966년 이후 국내에서 모습을 감춘 '섬시호'의 종자 증식에 성공, 도동 일원에 군락지를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에 따르면 섬시호는 1916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서만 발견된 희귀 식물로 잎이 5~6개이며, 7~8월 꽃을 피운다. 큰 것은 80cm까지 자란다.
 국립수목원 박광우 식물보존과장은 "섬시호가 울릉도에서 사라진다면 전세계에서 이 식물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돼 복원에 나서게 됐다"고 복원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목원은 울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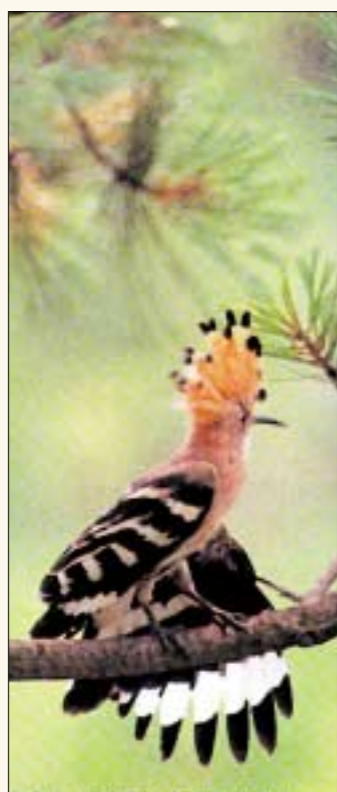
멸종 위기 식물인 '섬시호'가 40년 만에 자생지인 울릉도에 복원된다.
 도가 자생지이면서 30~40개체만 남아 있는 현삼과의 '섬시호' 보호 군락지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의 새 ①

후투티

(학명 *Upupa epops saturata*)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새를 중심으로 한국의 새 시리즈를 연재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한다. 연재는 전 월간 새 김백목 발행인이 맡기로 했다. <편집자주>



후투티(학명 *Upupa epops saturata*)

후투티목 후투티과의 조류로 단독 또는 암수 함께 생활한다. 몸길이는 약 28cm, 날개길이 약 15cm이며 분홍색을 띤 갈색, 1회에 5~8개의 알을 낳으며 서식장소는 구릉이나 야산이다.
 여름철새로 머리뒷부분의 깃털이 흡사 인디언의 추장모자와 비슷해 인디언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관은 펴고 접는 것이 자유롭다. 인가 근처의 농경지에서 긴 부리를 이용해 곤충을 잡아 먹는다.
 김백목(미래에셋생명FC 법안팀장, 가수 한강, 016-566-2003)

심마니 수해복구 '땀방울'

힘들 때 일수록 서로 돕는 정신

한국심마니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박만규)는 8월4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수해피해지역에서 수해복구에 나섰다.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해복구작업은 포그레인으로 복구를 마쳤으나 잔손질이 안된 곳에 삽과 괭이를 들고 폭염과 싸우면서 복구하고 계곡에서 떠내려온 나무 등을 정리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실제로 인문매체를 통해 들었던

것보다 훨씬 수해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회원들은 앞다투어 봉사의 손길을 나누었다.
 이날 수해복구에 나선 김삼환 회원은 "수해 피해가 생각보다 심해 마음이 아팠다"며 "미흡하지만 하루종일 복구에 동참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심마니협회 포천시지부는 8월4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수해피해지역에서 수해복구에 나섰다.

포천시 세정발전연구회, 자연정화활동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서 우수상 선정

포천시청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정발전연구회(회장 유창열)는 시가 전개하고 있는 '시민만족 100운동'의 일환으로 지난주 토요일 관내 호병골 계곡을 찾아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세정발전연구회는 민원인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해오고 있는 단체로, 이날을 장마로 인해 지저분해진 호병골 계곡을 찾아 구석구석에 놓인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고 피서객들을 상대로 환경보호 계도활동도 실시했다.
 특히 민원업무의 특성상 평일에 활동이 여의치 않아 토요일에 휴가 중인 직원들까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포천시청 세정발전연구회는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벌이거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시민만족 100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일 경기도가 발표한



포천시청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정발전연구회는 시가 전개하고 있는 '시민만족 100운동'의 일환으로 지난주 토요일 관내 호병골 계곡을 찾아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바에 따르면 2005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포천시가 우수상 수상 단체로 선정돼 7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포천시의 이 같은 성과는, 전 직원이 민원편의행정

구현과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아남 플라워

http://www.anamflower.co.kr

전국 꽃 배달 서비스

의미있는 축하의 마음 생일기념일 	사업의 번창을 기원 개업/이전 	소중한 당신은 내 운명 사랑의 고백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취임 	건강과 쾌유를 빕니다 출산/병문안 	이사 · 새집 마련 축하 집들이 선물 	애도와 추모의 마음 근조/추모
---------------------------------	--------------------------------	-----------------------------------	--------------------------------	----------------------------------	------------------------------------	--------------------------------

■대표 장춘화 ■031) 847-2298 ■의정부시 금오동 374-1번지 아남주상복합상가 119호